

# 융복합시대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 체험활동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봉선<sup>1</sup>, 양세비<sup>2\*</sup>

<sup>1</sup>한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sup>2</sup>온세미로 상담센터

##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Adolescents' Career Identity in the Times of Convergence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xperie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Bong-Seon Park<sup>1</sup>, Se-Bi Yang<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sup>2</sup>Onsaemiro Psychological Consultation Center

**요약** 본 연구는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과 체험활동 만족도 및 학교생활적응이 주는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부모방임 하에 있는 청소년의 진로정체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패널 6차년도(2015) 자료를 활용하여 391명의 사례를 선정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부모방임 척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은 낮아진다. 둘째,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대한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부모방임 하에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및 학교 중심의 적극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 진로 정체감, 부모방임, 체험활동 만족도, 학교 생활적응, 융복합시대

**Abstract** This study trie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on career identity, and prove the meditating effect of experie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the times of convergence. For the study, the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was analyzed by utilizing the path analysis, and the number of subjects was 391 adolesc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neglect influenced negatively career identity. Second, experie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experience satisfaction. Third, parents' neglect directly influenced career identity and its' effect was indirectly mediated by the subjects's experience satisfaction and school adjustment. Therefore,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utilized for theoretical implication and foundation for developing programs to increase career identity.

**Key Words** : Career Identity, Parents' Neglect, Experienc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Convergence Era

### 1.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미

흡하여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와 교사 및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쪽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대학에 진학하여 전

공과목에 흥미를 잃게 되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전공과 무관한 일을 선택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사회현상을 낳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는 성인기를 준비하고 직업에 대한 흥미와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시기로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를 결정하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다[1].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고 있으나 하는 것을 의미하고[2], 개인이 마음에 드는 직업역할에 연계를 짓는 것이며[3], 학교중심의 생활에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변화 시기 동안 형성되는 생애주기의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적절한 진로탐색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습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탐색 및 발견이 필요하다. 일의 세계를 이해해서 자신과 일의 세계를 연결 짓는 진로 정체감의 확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최근에 관심을 보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부모방임을 들 수 있다. 부모방임은 부모가 고의적이거나 보통수준 이하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능력 발달에 필수적으로 간주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5]. 이처럼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몇몇 선행연구에서 기술하고 있다[6,7]. 부모방임에 놓인 청소년의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은 때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 연구결과도 있다[8].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내야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적응은 학교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동화되어 각각의 대상들을 향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9].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부모양육 태도는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며,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학교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0]. 이처럼 무관심, 감독소홀, 정서적 유대감 부족 등의 부모 자녀간의 방임적 태도는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1]. 뿐만 아니라 반복적 양육과 보호 소홀로 인한 방임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2]. 이러한 결과로 학교생활에 조화롭게 적응을 잘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

타난다[13].

청소년기 체험활동 만족도의 효과는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사회성, 사회적 역량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체험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대체로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14].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 행동 모두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15]. 청소년 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동아리 활동이 직업성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체험활동만족도가 청소년의 진로 및 미래 목표 설정에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16]. 또한 청소년이 체험활동에 대해 만족할수록 진로에 대한 정체성이 높게 형성되어, 체험활동과 만족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17,18]. 진로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이나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체험활동 만족도는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정체감, 학교생활적응, 체험활동·봉사활동 만족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19]. 하지만 부모방임 하에 있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확립에 부모방임과 체험활동 만족도 및 학교생활적응의 상호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진로정체감 간에 있어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이 어떻게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여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또한 진로정체감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진로 문제를 지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둘째, 부모방임과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사이에서 학교생활적응은 어떻게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가?
- 셋째, 부모방임과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 사이에서 체험활동 만족도는 어떻게 매개효과를 가질 것인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하여 축적하고 있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 16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는 본 연구에 부합되는 봉사활동(일손 돕기 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등)과 직업체험활동(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에 참여한 391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2.2 측정도구

#### 2.2.1 진로 정체감

본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 16차 자료에 수록된 진로정체감 문항을 활용하였다. 진로정체감의 질문문항은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본 척도는 모두 역 문항을 이루고 있어 역 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뜻한다.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값은 0.888로 높게 나타났다.

#### 2.2.2 부모방임

본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 16차 자료에 수록된 부모방임 문항을 활용하였다.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 질문문항은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 쓰신다’ 등의 방임 영역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서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방임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부모방임의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705이다.

#### 2.2.3 학교생활적응

본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 16차 자료에 수록된 학교생활적응 문항을 활용하였다. 매개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은 20개의 질문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응답범주는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등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문항 중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등을 제외하고 역 코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값은 0.865로 높게 나타났다.

#### 2.2.4 체험활동 만족도

본 척도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중 16차 자료에 수록된 체험활동 만족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청소년 체험활동 만족도 질문문항의 구성은 봉사와 직업 체험활동으로 진로와 관련이 있는 체험활동 2개 영역에 대한 참여 만족도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1점 ‘매우 그렇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4점 ‘혀 그렇지 않다’, 등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다. 역 코딩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체험활동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값은 0.693로 높게 나타났다.

###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WIN21.0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진로 정체감과 관련된 변인 간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과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과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학교생활만족도와 체험활동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검증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39.1%), 여학생(60.9%)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은 일반고(71.4%), 자율/특목고(14.3%), 특성화고(14.3%)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 상태는 잘사는 편(18.9%), 보통 수준(61.6%), 못사는 편(19.4%) 이었으며, 건강상태는 건강하다(93.6%), 건강하지 못하다(6.4%)로 건강하다는 대답이 율했다. 성적만족도는 만족한다(54.5%), 만족하지 못하다(45.5%)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91

variable	N	%	
Gender	male	153	39.1
	female	238	60.9
School type	general	279	71.4
	special-purpose	56	14.3
	specialized	56	14.3
Subjective economic status	wealthy	74	18.9
	middle	241	61.6
	poverty	76	19.4
Health condition	healthy	366	93.6
	unhealthy	25	6.4
School record satisfaction	satisfaction	213	54.5
	dissatisfaction	178	45.5

### 3.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한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통해 전체적인 경향을 기술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각 변수들의 평균(표준편차sd)을 살펴보면, 진로정체감의 평균값 3.07(sd 0.57), 부모방임의 평균값 1.83(sd 0.51), 체험활동 만족도의 평균값 3.31(sd 0.58),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은 3.07(sd 0.3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변수 중 부모방임의 평균은 중간 값에 비해 약간 낮으며, 진로정체감, 체험활동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의 평균은 중간 값 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career identity	391	1.63	4.00	3.07	.57
parents' neglect	391	1.00	4.00	1.83	.51
experience satisfaction	391	1.00	4.00	3.31	.58
school adjustment	391	2.05	4.00	3.07	.36

부모방임의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연구대상자가 조사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부모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 받으며 관심은 더 받게 되는 학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결과는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부모방임은 진로정체감( $r=-.251, p<.01$ )과 체험활동 만족도( $r=-.132, p<.01$ ) 및 학교생활적응( $r=-.424, p<.01$ ) 등 모든 변수들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진로정체감은 체험활동 만족도( $r=.192, p<.01$ )와 학교생활적

응( $r=.4231, p<.01$ ), 학교생활적응과 체험활동 만족도( $r=0.249, p<.01$ )간에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값이 0.7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career identity	parents' neglect	experienc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career identity	1			
parents' neglect	-.251**	1		
experience satisfaction	.192**	-.132**	1	
school adjustment	.423**	-.424**	.249**	1

주) \* $p<.05$ , \*\* $p<.01$ , \*\*\*  $p<.001$

### 3.3 부모방임, 체험활동 만족도, 학교생활적응이 진로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주는 통제변수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학교유형, 주관적 경제상태, 건강상태, 전체 성적만족도 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부모방임, 체험활동 만족도, 학교생활적응 변수를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첫째, Model 1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진로정체감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학교유형 1( $\beta=.134, p<.05$ ), 학교유형 2( $\beta=.155, p<.05$ ), 건강상태( $\beta=.086, p>.05$ )는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건강상태는 유의미하지 않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Model 2에서 부모방임과 진로정체감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부모방임이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자녀를 방임할수록 진로정체감은 낮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이 부모의 방임에 노출될수록 진로 탐색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를 무의미하게 보내게 되어 진로에 대한 정체감 형성은 자연히 떨어지게 된다. 이 결과는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형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6]. Model 2에서 진로정체감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수정된 R제곱이 Model 1에 비해 5%( $F=5.331, p<.001$ ) 증가한 7.2%이다. 이것은 부모방임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Table 4.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experience satisfaction, school adjustment, on career identity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B	$\beta$	t	B	$\beta$	t	B	$\beta$	t	B	$\beta$	t
gender	-.046 **	-.039	-7.70	-.045	-.038	-7.75	-.049	-.042	-8.60	-.085	-.073	-1.568
school type 1	.169 **	.134	2.033	.164 *	.130	2.029	.175 *	.139	2.192	.128	.102	1.692
school type 2	.252 **	.155	2.348	.212 *	.130	2.023	.194	.119	1.868	.133	.082	1.347
subjective economic status	-.022	-.024	-4.65	-.037	-.040	-8.16	-.043	-.047	-9.58	-.045	-.049	-1.052
health condition	.087	.086	1.670	.066	.065	1.295	.064	.063	1.279	.030	.030	.637
school record satisfaction	-.077	-.099	-1.930	-.061	-.078	-1.588	-.049	-.064	-1.280	-.013	-.016	-.348
Parents' neglect				-.260 ***	-.233	-4.676	-.241 ***	-.216	-4.365	-.092	-.082	-1.620
experience satisfaction							.156 ***	.159	3.216	.093 *	.094	1.982
school adjustment										.570 ***	.359	6.784
F	2.443 *			5.331***			6.071***			11.145***		
R <sup>2</sup>	.037			.089			.113			.208		
Adj. R <sup>2</sup>	.022			.072			.094			.190		
Durbin watson	2.023											

\*p<.05, \*\*p<.01, \*\*\*p<.001, Gender(Man:0, Woman:1)

셋째, Model 3은 체험활동 만족도 변수가 추가되었다. Model 2에서 보다 부모방임의 영향력은 조금 낮아졌고 ( $\beta = -.216, p < .001$ ), 체험활동 만족도와와의 관련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인다( $\beta = .159, p < .001$ ). 이는 청소년의 체험활동 만족도가 직업성숙과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17]. Model 3에서 진로정체감에 대한 독립변수 부모방임의 설명력이 Model 2에서 보다 2.2%( $F = 6.071, p < .001$ ) 증가한 것으로 보아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Model 4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이 변수에 추가되었다. Model 3에서 나타났던 부모방임의 영향력은 조금 더 낮아졌고( $\beta = -.082, p < .001$ ),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정체감과의 관련성은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beta = .359, p < .001$ ). 부정적인 부모양육 태도에 처한 청소년의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을 때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한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정체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냈다[8]. Model 4에서 진로정체감에 대한 독립변수 부모방

임의 설명력이 Model 3에서 보다 9.6% ( $F = 11.145, p < .001$ ) 증가한 것으로 보아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모델에 적용했던 분석결과를 보면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은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학교생활적응, 부모방임, 체험활동 만족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3.4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검증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이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Baron과 Kenny가 제안한 분석단계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먼저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4.1 체험활동 만족도가 부모방임과 진로정체감 간의 매개효과 검증

Table 5의 결과에서 Model 1은 부모방임이 진로정체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속변인 진로정체감에 대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6.1%이다. Model 2에서 부모방임의 영향이 1단계보다 조금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내며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대하여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 $p<.001$ )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8.4% 나타나 1단계보다 2% 상승되었다.

Table 5. Mediated effect of experience satisfaction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251	-.230	.161	-.132
t	-5.113***	-4.695***	3.298** *	-2.635**
F	26.138***	18.837***		6.941***
R <sup>2</sup>	.063	.089		.018
Adjusted R <sup>2</sup>	.061	.084		.015

\* $p<.05$ , \*\* $p<.01$ , \*\*\*  $p<.001$

Model 3에서 부모방임은 체험활동 만족도에 대해 부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결과를 통해 부모방임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떨어지는데 체험활동의 매개역할을 통하여 진로정체감을 향상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 3.4.2 학교생활적응이 부모의 방임과 진로정체감 간의 매개효과 검증

Table 6에 나타난 검증결과에서 Model 1은 부모방임이 진로정체감에 대하여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6.1%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는 부모방임의 부정(-)인 영향이 Model 1에서 보다 65%정도 낮아지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p<.001$ ), 진로정체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다.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 $p<.001$ ), 진로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18.1%로 12% 높아졌다.

Table 6. Mediated effect of school adjustment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eta$	-.251	-.087	.386	-.424
t	-5.113***	-1.726	7.636***	-9.222***
F	26.138***	44.149***		85.049***
R <sup>2</sup>	.063	.185		.179
Adjusted R <sup>2</sup>	.061	.181		.177

\* $p<.05$ , \*\* $p<.01$ , \*\*\*  $p<.001$

Model 2(3단계)에서 부모방임은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부정(-)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결과를 보면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부모방임으로 낮아진 진로정체감에 대해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결론 및 논의

부모의 방임은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 체험활동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이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9].

둘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직업관련 체험활동 만족도나 봉사활동 만족도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험활동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에 대해 체험활동은 진로정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한 연구를 뒷받침한 결과라고 본다[17].

셋째, 학교생활적응 변수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미래진로와 진로정체감을 향상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고 제시한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9].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활용한 패널조사 자료의 대상이 중학교 1학년 6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2015년 조사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이 되었다. 청소년시기의 막바지 학교생활과 진학과 취업이 어느 정도 결정된 시기일 수 있으므로 다소 제한적인 점이 있다. 청소년기 전 연령 대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방임 하에 있는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가족요인과 개인적인 특성 외에 사회적 환경체계나 정책적 방향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조사된 패널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는 변수 구성의 제한과 그로 인해 논의의 확장을 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간으로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 제공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학급단위의 프로그램 강화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의 학급단위별, 남녀별 진로탐색 프로그램으로의 활용을 제안한 연구결과를 참고하여[20-22], 직업위탁 교육까지를 포함한 학교중심의 다양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요한다. 특히 부정적인 부모양육 태도 하에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관련 직업분야 위탁반 운영, 관심분야 학교 선배와의 멘토링 설정, 관심 직업관련 분야 명장 초청 강의, 진로 박람회 개최 등 학교 중심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체험활동 개발과 참여 프로그램의 진행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은 청소년들을 능동·적극적으로 진로 관련 부분에 노출 참여 시킬 수 있게 되어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진로정체감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D. E. Super, *Vocational Development: A Framework for Research*. Bureau of Publica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7.
- [2] J. L. Holland, D. C. Gottfredson and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Vocation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 No. 6, pp. 1191-1120, Dec. 1980.  
DOI : 10.1037/h0077731
- [3] F. Meijers, "The Development of a Career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Vol. 20, No. 3, pp. 191-207, Sep. 1998.  
DOI : 10.1023/A:1005399417256
- [4] H. S. Lee and H. J. SW, "The Factors Affecting the Adolescent's Career Identity: Neglec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6, pp. 57-73, Jun. 2015.
- [5] N. A. Polansky, C. Hally and N. F. Polansky, "Profile of neglect,"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5.
- [6] J. Y. Park and H. S. Chung,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Career Identity in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ed by Academic Achievement," *Korean Association of Life-span Studies*, Vol. 6, No. 6, pp. 57-73, 2016.
- [7] M. R. Park and E. J. Yang, "The effects of parental neglect and peer attachmen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rough the medium of self-identity and care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4, No. 1, pp. 263-284, Jan. 2017.  
DOI : 10.21509/KJYS.2017.01.24.1.263
- [8] B. K. Park and P. S. Noh,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Abuse and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n Life Satisfaction : Moder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10, pp. 181-203, Oct. 2016.  
DOI : 10.21509/kjys.2016.10.23.10.181
- [9] S. R. Kwak and H. Y. Kim, "Effects of social relations in adolescent on self-concept and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the distin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11, pp. 407-440, 2015.
- [10] J. E. Choi and Y. J. Shin, "Study on Adolescents' Level of School Adjustment by Their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 and Teache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41, No. 2, pp. 199-210, 2003.
- [11] J. B. Kim, "A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to teenagers' maladjustment at school life- The main focus on maladjustment teenagers," *Journal of clinical social work*, Vol. 6, No. 2, pp. 25-48, May. 2009.
- [12] J. Y. An, Y. E. Son and S. I. Nam, "The Effects of Abuse and Neglect from Parent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12, pp. 261-284, 2014.
- [13] M. Y. Whang and H. Y. Park, "Career Development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Skills Development*, Vol. 8, No. 2, 2005.
- [14] Y. S. Kim and Y. H. O "A Study on the Management

for the Creative Activity Education,” *Journal of open education*, Vol. 20, No. 2, pp. 285-304, 2012.

[15] H. S. Jang and J. I. Youn, “The Effect of Life Goals, Activity for Career Experience on Career Identity in First-year Student of Middle Schoo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Vol. 16, No. 6, pp. 271-292, 2016.

[16] Y. N. Kim and O. S. Park,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Youth Activities -Focusing on self-esteem, Vocational Maturity, academic achievement, Life satisfaction, Stress,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 11, No. 1, pp. 79-99, 2009.

[17] A. Y.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Experience Activity, Self-esteem, Significant Other and Career Maturity*, Graduate School HanNam University, 2010.

[18] W. S. Park and G. S. Kim, “The Effects of High-school Student’s Service Learning on Ego-Identity, School Adjustment,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4, No. 1, pp. 23-40, 2012.

[19] Y. A. Son, S. J. Sin and E. R. Son, “Valuables affecting to Career Identity of middle school student,”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7, No. 1, pp. 109-125, 2014.

[20] J. W. Lee and H. S. Kim, “The Effects of a Classroom-Based Career Exploration Program on Career identity and Ego-identity of Middle School 1st Grad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9, No. 1, pp. 191-217, 2012.

[21] S. Y. Kim, “The Effect of Vocational Training Satisfaction of Youth on their Career Adaptability to the Small Busines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7, No. 2, pp. 131-136, 2017.  
DOI : 10.22156/CS4SMB.2017.7.2.131

[22] S. Y. Cho and K. C. Kim,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Maturity for middle-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9, pp. 325-349, 2014.

## 저 자 소 개

박 봉 선(Bong-Seon Park)

[정회원]



- 1994년 8월 : 강원대학교 학사
- 2010년 2월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7년 2월 ~ 현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관심분야> : 청소년, 노인문제, 융합정보서비스

양 세 비(Se-Bi Yang)

[정회원]



- 2015년 2월 : 한세대학교 상담심리 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온세미로 상담센터 센터장

<관심분야> : 청소년, 가족상담, 가족복지